광탄 독립지사 심상각의 재조명1

심상각 생애

국가보훈처 공훈록

경기도 파주(坡州) 사람으로, 3·1운동 때 파주군의 주동자로 활약하였고, 그 후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27일 파주군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주도하여 군 전체가 봉기할 것을 계획하고, 군중과 함께 면사무소를 습격한 후, 그 여세를 몰아 남파주(南坡州) 경찰 주재소가 있는 봉일천리(奉日川里)까지 시위행진하여 만세를 불렀다.

그 후 중국 상해(上海)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약 10년간 활동하다가, 광복된 후 귀국하여 후진양성을 위한 육영사업에 전념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파주독립운동사

-심상각(沈相恪, 1888~1963), 김포(金浦) 출생, 파주(坡州) 성장-

호는 우산(山), 현감 정택(定澤)의 아들로 본관은 청송 이다. 1919년 3.1운동 당시 3월 10일 파주지역에서도 임 명애

(林明愛) 등 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고, 3 월 25일에도 구세군(救世軍)인 염규호(廉圭浩)가 김수덕(金守德), 김선명(金善明), 임명애, 김창실(金昌實) 등과 더불어 시위를 계획하여 3월 26일 와석면 일 대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만세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김웅권(金維權)등 과 함께 군내 월롱(月籠) · 교하(交河)·아동(街洞)·조리(條理)면 등지의 시일 을 이용하여 군 전체가 봉기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3월 27일 2천명의 시 위군중이 광탄면사무소 앞에 집결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 였다.

시위대는 조리면 봉일천리(本日川里) 장터로 행진하여 그 곳에 있던 1천여 시위군중과 합세하여 봉일천 헌병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격렬한 만세시위를 벌였 다. 이러한 시위를 주동한 후 중국 상해(上海)로 망명하여 상해농업전문학교여 적을 두고 신교육을 받으면서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약 10년간의 임시정부 활동을 마감하고 국내에 돌아와서는 신간회(新幹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파주군 광탄면에 광탄보통학교(廣灘普通學校)를 설립하고 그 교장에 취임하여 후진 양성을 위한 육영사업에 전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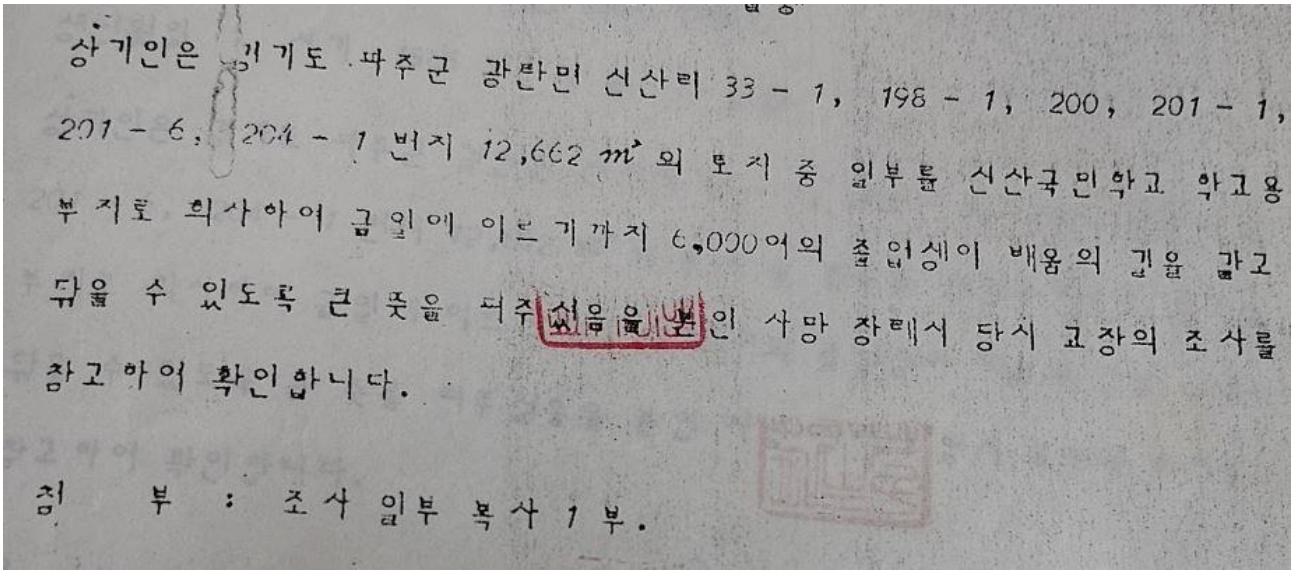
정부에서는 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했으며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2019.8.15일 파주시 발간,165쪽>

*심상각 독립지사의 생애 기록 - 파주위키 참고

심상각 지사의 재조명

신산국민학교 부지 기증 분야

1.학교부지 기증 확인서(신산국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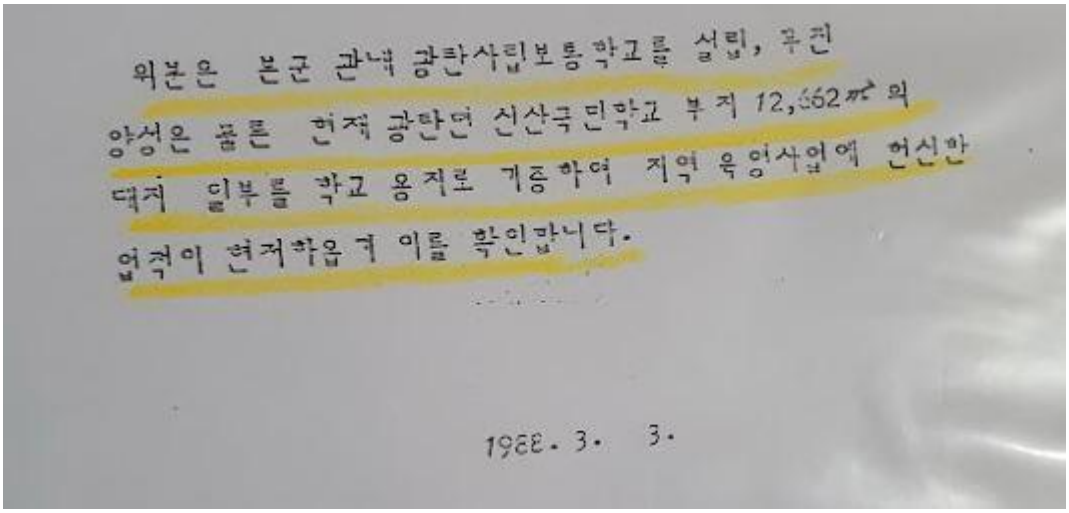


상기인은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신산리 33 - 1, 198 - 1, 200, 201 - 1, 201 - 6, 204 - 1 번지 12,662 ㎡ 외 토지 중 일부를 신산국민학교 학교용부지로 희사하여 금일에 이르기까지 6,000여의 졸업생이 배움의 길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큰 뜻을 펴주심을 본인 사망 장례시 당시 교장의 조사를 참고하여 확인합니다.

첨 부 : 조사 일부 복사 1부.

- 발행 : 신산국민학교장 (직인 날인)
- 일자 : 1988, 2. 22일
- 심상각 실제 사망일 : 1954.11.9일 (호적 및 보훈처 1969.3.7일)

2.학교부지 기증 확인서(파주교육청)


위본은 본군 관내 광탄사립보통학교를 설립, 운영
양성을 꾀른 현적 광탄면 신산국민학교 부지 12,662㎡의
대지 일부를 학교 용지로 기증하여 지역 육영사업에 헌신한
업적이 현저하옵기 이를 확인합니다.

1988. 3. 3.

- 발행 : 파주교육장 (직인 날인)
- 일자 : 1988.3.3일

3.기증 확인서 분석

심상각 지사의 독립운동을 인정한 정부는 1977년에 대통령표창을, 1991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국가보훈부 공훈록에는 1919년 3월 27일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임시정부에서 10년간 활동하다가 광복 후 귀국하여 후진양성을 위한 육영사업에 전념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공훈록은 심상각의 아들 심정택이 1988년부터 2년간 준비하여 제출한 공적심사 내용을 요약했다. 이 중 육영사업은 광탄보통학교 교장으로 취임하고 학교 부지를 기증한 확인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독립유공 공적심사 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서는 1988.2.22일 신산국민학교 교장(1번 확인서)과 1988.3.3일 파주교육장(2번 확인서)이 발행했다.

'1번 확인서'에 따르면 광탄면 신산리 33-1번지외 5필지 토지 중 일부를 희사하였고, 이 사실은 심상각이 사망하고 지사의 장례식에 참석한 당시 교장의 조사서를 참고했다고 기록했다. 심상각은 실제 1954.11.9일(공부상 1969.3.7일) 사망한 것으로 보아 장례식에 참석했던 교장은 34년 후 '1번 확인서'를 작성할 때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파주군교육청에서 발행한 '2번 확인서'는 신산국민학교 부지 12,662㎡ 중 일부를 기증한 것으로 기록하면서 해당 필지의 지번은 생략했다. 이는 '1번 확인서'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번 확인서'에 기록된 "현재 신산국민학교 부지 12,662㎡ 중 일부를 기증"이라는 표현은 당시 신산국민학교 전체 필지와 면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심정택이 독립유공자로 신청할 당시에 부친 심상각이 기증한 토지 지번과 면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포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1번 확인서'에서 명시한 신산국민학교 부지 전체는 6개 필지이다. 2025년 현재 이 필지들은 광탄면 신산리 199번지로 통합됐다. 통합 이전의 과거 필지는 파주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가 1918년에 마친 토지조사부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다.

파주시 공부자료를 확인하면 신산국민학교 부지 6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1962년부터 1974년까지 파주군교육청 또는 파주군으로 이전됐다. 이중 5필지는 심상각이 아닌 오세남 등 다른 개인이 전소유자이고 신산리 33-1번지 1필지만 1961년 국가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신산국교 부지중 신산리 201-1번지 1필지는 일제가 조사한 토지조사부에 심상각과 심경섭이 공동 소유자로 기록되어있다. 이는 해당 토지를 신산국교에 기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기증되기 전 마지막 소유자가 오세남이라는 것이 문제로 부각된다.

이 토지를 심상각이 공동소유의 토지를 기증한 것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토지조사후 명의가 등기로 확정된 것과 1962년 오세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25.3.25일]

신산국교 토지 소유자 현황(1988년 기준)

기증번지	면적(평)	1918년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연번 (국가기록원 자료)	토지대장 소유자	소유자이전
33-1	임야 1,414	자료없음	국가(1961년)	파주군교육청(1965년)
198-1	전 680	자료없음	윤덕원,우유두(1961년)	파주군교육청(1965년)
200	답 210	김홍식(1913년)-82	조용환외12명(1964년)	파주군교육청(1964년)
201-1	전 1,152	심상각+심경섭-84	오세남(1962년)	파주군교육청(1962년)
201-6	대 127	자료없음	우수호(1964년)	파주군(1965년)
204-1	대 656	자료없음	조용환외 12명(1962)	파주군교육청(1974년)

4. 과거 등기부 확인

독립유공자 신청서에 첨부된 기증 관련 확인서를 근거로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으로 소유자를 분석했다. 그 중에 신산리 201-1번지는 1918년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심

상각과 심경섭이 공동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가 1962년에 파주군교육청으로 이전될 때에는 소유자가 오세남이었다.

최근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폐쇄등기 이미지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신설됐다. 종전에는 몇 일전에 사전 예약 신청하고 해당 등기소에서 수령하는 방식이었으나 신설된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즉시 발급된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한 신산리 201-1번지의 폐쇄등기에는 최종 소유자가 오세남이고 1963년12월30일 파주군 교육청에 기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1964년 4월14일 등기 이전이 완료됐다.

이 폐쇄등기는 오세인의 부친이 사망해 1949년 3월22일 호주상속을 통해 1949년 4월4일 (단기 4282년)에 등기부가 처음 만들어 졌다. 그후 1963년 3월27일 호주상속으로 오세남에게 이전되고 그 다음해에 파주군 교육청에 기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1918년에 조사된 심상각의 토지가 오세인의 명의로 변경된 과정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신산국민학교가 1926년4월7일 개교될 당시 이 토지가 학교부지에 포함됐다면 오세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정황을 보면 심상각의 소유이었던 토지가 매매 등을 통해 이전되고 오세남이 파주군교육청에 기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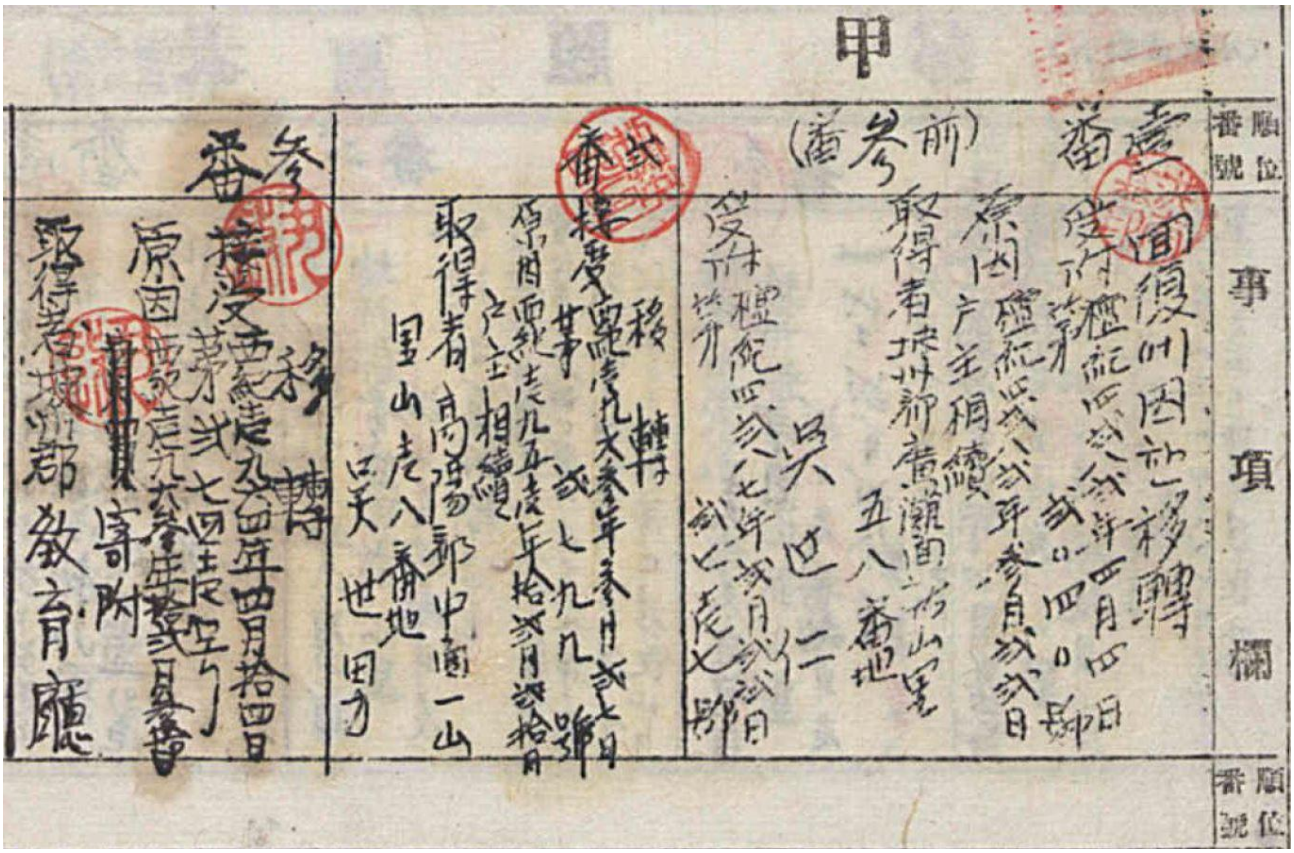
이 토지에 대하여 등기 또는 토지대장 등의 공공기관의 문서를 보면 신산국민학교 토지 6개의 지번 중에 토지대장과 등기에는 심상각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아 기증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신산리 33-1번지는 임야로서 국유지로 회복등기가 됐다. 혹시 심상각이 기증한 학교부지여서 국유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파주시에서 발급한 (구)임야대장에는 신산리 33-1번지가 1964.12.30일 유정희외 6인으로 회복등기됐다. 1979.3.20일에는 국(국방부)외 1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신산리 33-1번지의 기증자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1964년 회복등기 이전의 소유권 변동 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의 공부상에서는 심상각이 기증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2025.3.28.]

신산국민학교 부지 신산리 201-1번지 폐쇄등기부



- 발행 : 인터넷등기소
- 내용 : 신산리 201-1번지의 소유자 변동 사항

5.학교보관 기증문서 확인

과거 폐쇄된 등기부 등본에서 심상각 이름을 발견할 수 없었다. 등기에 나타나지 않아도 당시 기증과 관련된 내부 문서가 파주교육지원청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됐다.

2025.3.31일 정부 정보공개포털에서 파주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공개 신청 문서는 신산초등학교 개교 이후 학교 부지에 관련하여 기증 또는 토지 지번 통합, 토지 기증 확인서 발급 내용 등의 문서를 포함했다.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신산초등학교에 공개신청서를 이첩했고 2025.4.1일 신산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재산관리대장을 열람했다. 학교 측에는 재산관리대장 이외의 토지와 관련된 문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재산관리대장은 주로 1960년대 이후부터 관리되었고 그 중에 토지의 소유권보존, 매입, 기부채납의 연혁이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학교 부지 자료 중에 1968년대에 5천여평의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매입하거나 기부채납 받은 토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토지들은 심상각이 사망한 1954년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이번 조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증이 발생한 시기가 1910년부터 1960년 이전의 관련 서류이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시 일제가 작성하거나 해방 이후 작성된 문서는 한국전쟁시 소실될 수 있어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고 본다.[2025.4.1.]

재산관리대장 토지변동 내역

지번	지목 및 면적(평)	전 소유자	등기이전 사유	등기일자	용도
33-1	대 1331	파주군교육청	소유권보존	1966.1.17	교지
34-6	대 65	정영철	매입	1971.4.1	사택
34-7	잡종지 74	파주군교육청	소유권보존	1979.4.27	도로
201-1	대 93	오세남	기부채납	1964.4.14	교지
198-1	대 690	파주군교육청	소유권보존	1965.10월	체육장
207-1	답 1063	박해룡	매입	1968.10.5	체육장
207-2	답 267	박해룡	기부채납	1968.6.18	체육장
207-3	답 389	박해룡	기부채납	1968.6.18	체육장
208	답 872	박점필	기부채납	1668.6.18	체육장
205-1	답 1097	김대변	매입	1968.10.5	체육장
206-2	답 522	김대변	매입	1968.10.5	체육장
209	답 1140	우봉호	매입	1968.12.4	체육장

6.광탄보통학교 설립

<작성중 2025.11.20>

대한매일신보 191.1.17일자에 심상각이 야학교를 운영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麗灘夜校　坡州郡麗灘面沈相恪氏는該地民智를發達키爲호야麗新夜學校를特設호고熱心敎授홈으로學生이五六十名에達호야校況이日以進就호더라

1910.1.17일자 대한매일신보